

# 방산 수출 '역대급 질주'... 올해도 실적 신기록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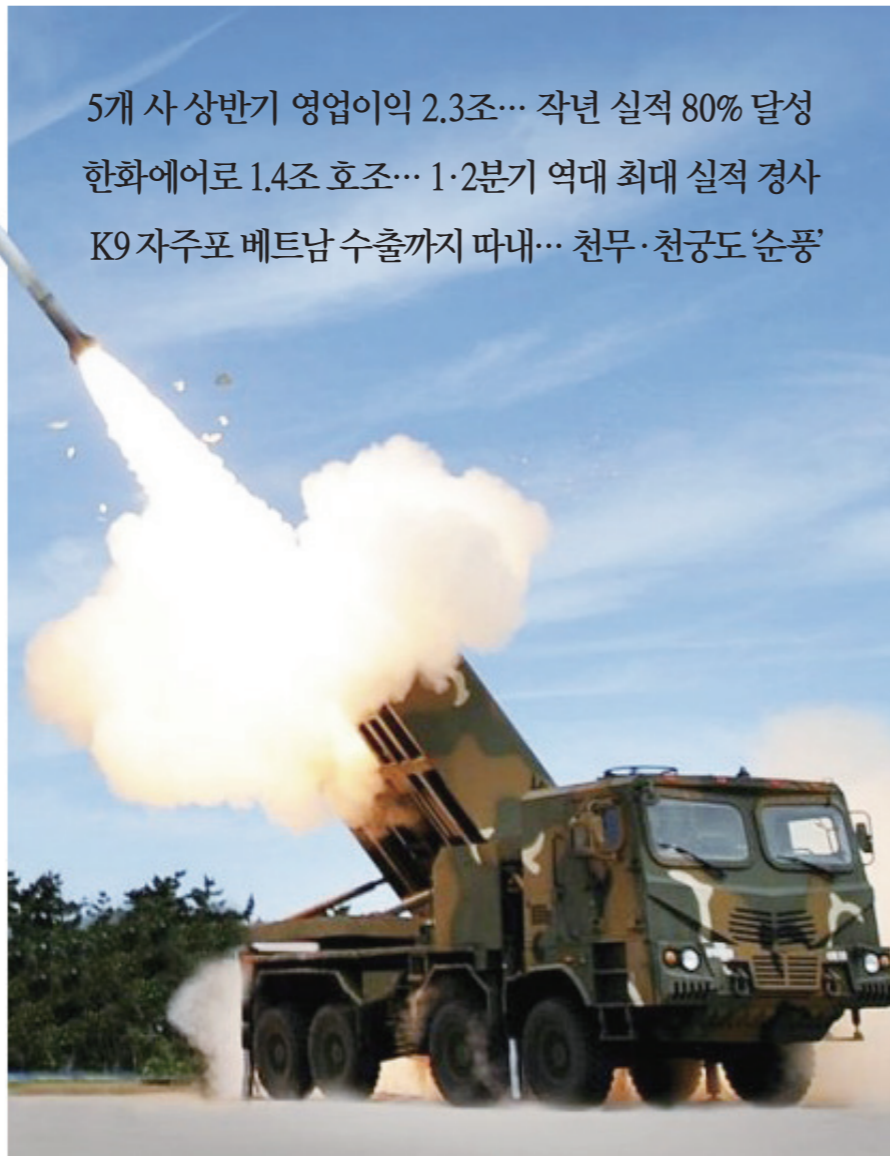
국내 방산업계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 속에 주요 5개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벌써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80% 수준에 도달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방산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가 베트남 수출 계약을 따내며 동남아시아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성과까지 거두면서 'K방산' 한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7일 방산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국내 주요 방산 5개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 합계는 2조3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807억 원)보다 161.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2조8783억 원의 79.9% 수준에 달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상반기에만 1조425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였다. 1분기(5608억 원)와 2분기(8644억 원)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64.6% 증가한 1912억 원, 현대로템은 무려 192.4% 늘어난 460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KAI는 79% 증가한 1320억 원을 기록한 반면, 한화시스템은 필리핀전소 인수 비용과 대규모 양산 대규모 양산 사업(TICN 4차) 종료 여파로 29.5% 감소한 916억 원에 그쳤다.



5개 사 상반기 영업이익 2.3조... 작년 실적 80% 달성 한화에어로 1.4조 호조... 1·2분기 역대 최대 실적 경사 K9 자주포 베트남 수출까지 따내... 천무·천궁도 '순풍'

다연장로켓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개사의 상반기 매출은 19조190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8573억 원) 대비

94.7%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11조7577억 원으로 210% 넘게 늘었고, 현대로템(2조5938억 원)과 LIG넥스원(1조8530억 원)도 각각 40.8%, 35.4% 증가했다. KAI(1조5276억 원)는 6.4%는 소폭 감소했고, 한화시스템(1조4583억 원)은 18.4% 성장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기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두각을 나타낸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 5개사의 수주 잔고는 총 111조9622억 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확보된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1조7000억 원, KAI 26조7000억 원, LIG넥스원 23조4665억 원, 현대로템 21조6368억 원, 한화시스템 8조4589억 원 등이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다연장로켓 천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 천궁-

II 레이더, FA-50 전투기 수출 등 각사의 주력 무기가 해외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시 "지난해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해 올해는 역대 최대 방산 수출 성과를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호황 속에 우리나라 방산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정부 간(G2G) 계약을 통해 베트남에 K9 자주포 25문 이상, 약 2억500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9 자주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처음 수출되는 것이다. 베트남은 세계 11번째 K9 도입국이 됐다. 그간 K9을 들여온 국가는 폴란드·튀르키예·핀란드·에스토니아·노르웨이·이집트·인도·호주·루마니아 등으로 이번 베트남 계약을 수출 국가의 외연을 더욱 확장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군 현대화 수요가 높다.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K9 자주포는 분당 6~8발 사격, 급속 사격 모드, 사격 직후 신속한 진지전환 기능 등으로 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의 점유율은 약 절반에 이르며, 앞으로 폴란드 대규모 공급 물량까지 소화하면 점유율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베트남 계약은 우리나라 방산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과거 베트남에 퇴역 초계함을 무상 제공하던 사례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무기 판매는 이번이 최초다.

국내 방산업계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수주와 공급 물량을 기반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체결한 K9 12차 물량 공급, KAI FA-50 추가 수출, LIG넥스원의 정밀유도무기 수출 등이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의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와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를 포함해 앞으로도 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 올해 국채 이자 30조 넘어설 듯

### 국가채무 질 악화... 중장기 건전성 '적신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가채무 이자 부담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에 따른 적자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 더해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재정운용의 제약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이자지출은 2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산(26조9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이자지출액(15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12조7천억원이 늘어나며 약 81%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데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확대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11조6000억 원(GDP 대비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4.1%)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국가채무 역시 1,301조9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로 뚜렷하다. 조세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4년 69.4%로 치솟았다. 금융성 채무(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를 줄이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결과다. 결국

국민이 직접 상환 부담을 떠안는 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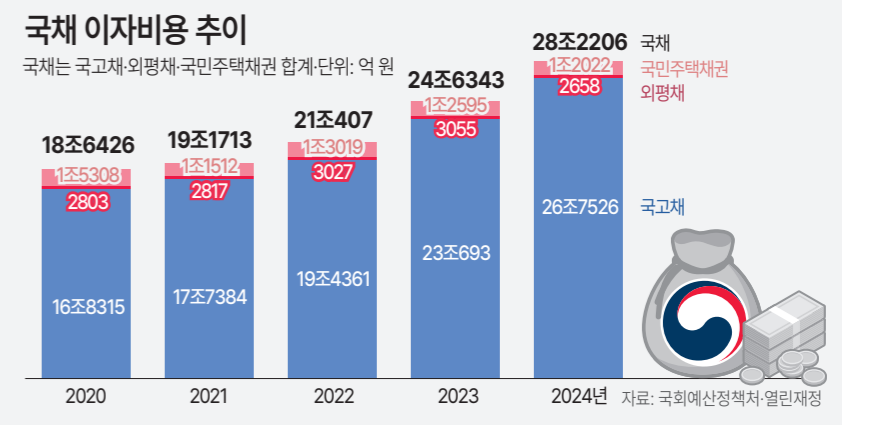
특히 국채 이자 지출은 2024년 결산액을 감안할 때 3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관리가 요구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 등까지 합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전년 대비 5.9%만 이자 부담이 늘어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자 지출은 의무 지출 성격을 띠고 있어, 이자 부담이 커지면 복지나 투자사업 등 재량 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재정 악화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2025~2072년)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급증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은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며, 2072년 국가채무는 7303조6000억 원(GDP 대비 173.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과 적자성 채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언이다. 특히 세계잉여금 활용, 조세 지출 관리, 국가채무 범위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스카이 만평 김용덕

이 명품백 받고 나랑 결혼해 줘!

## 治人 治世

#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